

대한민국 독도 우표를 내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상있다.

글, 우표: 月出 류재정 (촬영예술 명예박사, 동아인재대학 초빙교수)



2004년 1월 새해를 맞아 정부에서 발행한, 반(동도 한쪽)쪽, 독도 그림 우표는 고가로 팔려서 장사 속으로는 정부에서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완전한 독도의 동, 서도는 남, 북한처럼 갈라진 반도의 운명을 담게 될지 모르는 불길한 앞날을 재촉 하듯, 불안과 분통이 북바쳐 오한이 치민다.



동, 서도를 싸잡은 독도를, 동도 한쪽만 그려서 발행한 반(동도 한쪽)쪽 독도우표는 최근 신환일 어업협정이 체결되기 전만해도 독도(獨島)(東島, 西島)가 우리 영해에 속했는데 어업협정이 발표된 후에는 공동해상으로 빠져 나가 안타깝게도 현재 독도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 수역 안에 있다. 현재 우리 해양경비대가 동도만 지키고 있어서 서도는 무방비 상태다. 만일 이제라도 아음을 타고, 침략 근성의 전과자인 일본 우익 강경파들이 서도를 기습 상륙(上陸)한다면, 한국해양경비대가 막아낼 수 있으리라고 보인가?... 불 보듯 뻔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왜 방치하는지? 만일 서도에 일본인이 상륙하여서, 자국민 보호와 공동 수역협정을 빌미로, 해상 자위대가 출동 안한다는 보장을 누가할 수 있단 말인가? 특히 일반 주민도 없는 무인도에 치안과는 관계없는 경찰이 주둔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속 시원히 말해라!... 70노 교수 본인은, 50년이 넘도록 반세기를 사진만이 천직으로 알고 살아서, 사진 외는 무능한 내 심정 같으면, 국방의 선봉장이면서 도서반(島嶼防禦)가 임무(任務)인 해병대(海兵隊)를 파견 주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는데, 국방(國防) 당국은 왜! 묵묵부답인가? 묻고 싶고, 무엇인가? 답답한 심정 같으면, 하늘 아래서

양심선언이라도 토해내도록 주한(駐韓) 일본대사(日本大使)의 술통을 쪼이고 싶다. 사실 증명 자료는 사진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인데도, 그림으로 우표 발행한 체 신당국의 의도가 분명히 의심스럽다. 못해서 분통이 터진 70노 사진가인 본인이, 30년 전부터, 역세 파도와 생사를 걸



고 싸우면서 수많은 사진을 촬영했으나, 마음에 닿는 독도사진이 없어 방황하던 차, 천의신조로 한 점의 독도일출(獨島日出) 사진작품 한 점을 얻게 되어 깊숙이 감추고 또 감추어서 간직한 작품을 아낌없이 공개키로 작심하여, 최초(最初)의 독도사진 우표를 중앙우체국 우표사업팀에 의뢰하여,

2004년 3월 1일 발행, 기록(記錄)했다. 몇 해 동안을 구조처럼 외치는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 영터리 단어는 한국사람 입으로 꺼내서는 말도 안 된다. 우리 땅을 우리 것이라고 강조

함은 무언가? 주인 의식이 상식 밖에 있다. 고로 이번 우표는, 대한민국 독도 우리 글로 KOREA DOKDO 한국어로, 2004. 03. 01은, 독립선언문 발표일, 3?1 정신을 이어 받아 독도의 중요성을 상기한 바램이다.

끝으로 고이즈미 총리의 독도 망언의 규탄을, 3?1분 앞에서 대한의 건아, 국회의원, 문화예술단체, 향군단체, 독립투사단체, 대한민국독도복색운동연합 독도병대 I Love Dokdo 등 애국(愛國)합성의 외침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고 힘찬 박수를 보낸다. 이 규탄 발언이 진정한 마음과 뜻의 발언이라면 이름은 나라가 실천해야 한다. 우선 외교부(外交部)의 최근 독도 기피정책, 독도기점 포기정책, 신환일 어업협정의 중간수역 책정, 독도 주민 철수 등, 이런 문제들을 국회는 특별 국정조사 하고 심핵에 대해선 정계 처리해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일국의 총리인 고이즈미의 망언과 독도 침략 시도에 맞서 당당히 대응 규탄하고, 독도수호대를 정책 수립 실천에만 각 국민이 분야임을 못 박는다.

전화: 011-663-1313 0502-744-1313 Mail: photojir@hanmail.net

한국사진작가협회 제 45차 정기총회 용산 구민회관에서



이 해주길 바란다" 하였다. 사진 문화 발전에 공헌 한 박 명환 회원 등에 대한 시상어 있었다. 이번 정기총회는 현 집행부의 개혁의지를 담은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 총회의 인준을 기대 하는 총회였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의 연기 요청과 의견 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내년 총회의 연기가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사기능의 강화 및 사무처 신설 독립 기능 부여 등 현 집행부의 개혁의지가 담겨져 있었으

감사기능 강화 및 사무처 신설 독립기능 등 집행부의 개혁적 의지 정관 개정 좌절로 퇴색 될 듯



며 대의원 제도 개선을 통한 사진작가 협회 운영에 합리화를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이 정관 개정안이 무산됨에 따라 한국 사진 작가협회 집행부의 개혁 의지가 퇴색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일 집행부 예산 전용 문제 현 집행부의 부담이 될 듯 감사에 대한 질문 과정에서 안희원은



사단 법인 한국 사진작가 협회 제 45차 정기총회가 2006년 2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구민회관에서 있었다.

김종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동체 실시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컴퓨터 심사제도 등 새로운 시도를 모색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 조치 가치관과 환경이 새로워지는 좀 더 긍정적인 새 문을 짜야 한다고 말하고 집행부를 위한 격려와 성원 그리고 감정의 의견과 공격적인 회원들의 충고를 바란다" 하였다. 또한 한국 사진의 위상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데 회원 모두가 기



전일 집행부가 회원들과의 법적 소송 과정에서 회원들의 회비로 평성된 예산을 집행부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고 현 집행부에서 전일 집행부에게 구상 청구 할 것을 요구 하였다.

이는 예산 집행 및 전용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하고 있으며 집행부의 책임 한계를 새롭게 제시 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신원중 기자 (wjshin53@korea.com)

사진 동우회 탐방 해병대 사진 전우회를 찾아서



해병대 전우회란 친목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등록 하면서 모든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경험한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문화가 어떻게 사회에서 조화를 이루고 숨쉬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예비역 정복에 있어 이해병 전우회는 모병 사랑의 표준 모델이 되고 있다.

그중 사진과 관련 된 단체가 있어 이를 소개 하고자 한다. 해병대 사진 전우회가 그곳이다. 김병순 회장은 현재 엔지니어링

을 운영 하는 사업가로서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이며 해병 96기로서 해병대 사진전우회를 이끌고 있다. 명예회장으로서는 인제 대학의 유재정 교수가 적극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 이 해병대 사진전우회는 군사문화와 사진예술이 만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까지 군사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재고 케 하는 데 이 단체는 기여를 하고 있다. 현재 1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 되어 있으며 4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 기획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독기노인들의 근영사진 봉사 활동등 적극적으로 해병대정신이 사회에 기여 하는 바를 증명 하는데 힘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명예회장인 유재정교수가 펼치고 있는 독도사랑 운동은 현재 한일 관계에 우리정부가 맡아야 할 역할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